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일 예배 2026년 2월 15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하나님의 크신 사랑 / 찬송가 15(신) 55(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 찬송가 278(신) 336(구)

기도 / 박승화 집사

성경 봉독 / 요한복음 18장 36절, 사도행전 2장 42-47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보이지 않는 나라 / 박화신 목사

찬송 /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찬송가 540(신) 219(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이 천지간 만물들아 / 찬송가 5(신) 3(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세상의 흐름은 정말 ‘있는 사람’에 의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어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하는 일들이 벌어나고 아무 일도 없었듯이 마치 책임없는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의 나라는 결코 이런 세상(힘의 통치, 정치적 계산, 경제적 통제) 속에 없습니다.

2. 하나님 나라는 말씀 안에서 사랑, 순종,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직접 보여주셨고, 또한 첫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세상의 매력과 혼동한다면 그분의 나라가 세월질 곳이 없습니다. (겨자씨, 밭의 보화의 비유)

3.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및 무리들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 두 가지만을 약속하셨지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과 그분이 오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물리적, 영적 유산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아무 것도 주지 않으셨으니 그분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일 설교

값을 다시 매기다

마 13:44-46

1. 말이 아닌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말이나 구호에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4:20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능력은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로마서 14:17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의, 상황을 넘어서는 평강,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임을 경험합니다.

2.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할 가치

그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서라도 불들 만한 값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44-46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보화는 이미 있었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발견하고 붙드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순간, 다른 것들의 자리는 자연히 재조정됩니다.

3.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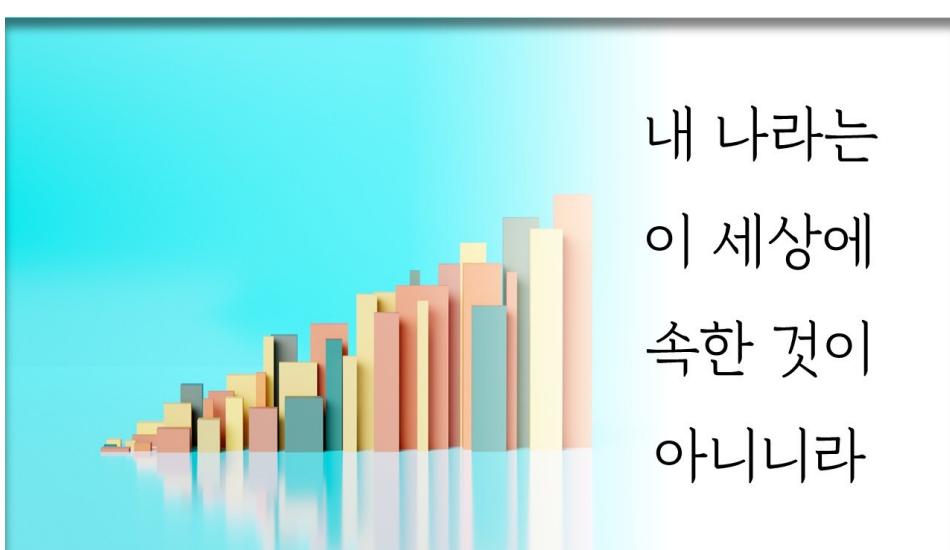
세상은 그 나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지라도, 성도에게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값을 다시 매겨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순간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로 판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 명 생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5. 새로운 목장 첫 모임이 2월 2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미얀마 목장 / 한규철(목자) 김정신 서민정 윤진 한광기 한미숙 한정임
파라과이 목장 / 조창(목자) 박래석 박승화 조은영 최명희 최상천

2월 예 배 위 원

안내	한규철	김정신
기도	한미숙(1)	조창(8)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제직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성경공부		성경 읽기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주일 저녁 7시 30분	월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법칙으로 교회의 부흥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숫자, 규모, 영향력, 가시적 성과로 하나님 나라를 입증하려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성공 공식을 빌려와야만 복음이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통계로 설명되지 않았고, 초대 교회는 권력으로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역사로 자랍니다.

우리 안의 ‘증명하려는 마음’, ‘보여주려는 흑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